

“ 위로하라 내 백성을! ”

■ 이종윤 원로목사

선지자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한다. 이사가 때나 바벨론 포로기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메세지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리시거나 고통 중에 있게 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 외쳤다. 선지자의 과업은 백성을 책망한 한 것이 아니고 감화 감동적인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고 진노의 지팡이를 드시어 죄인들을 때리시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엔 위로와 소망도 주신다.

혼돈된 이 사회를 말씀으로 재창조해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적 영역을 책임진 교회가 혼돈에서 헤매이고 있으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백성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선 죄를 없애야 하고 그 다음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며 찢갠대로 처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백성에게 영적 안위와 위로가 임한다. 이 같은 위로는 죽은 조상이나 우상이 줄 수 없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대속자로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게 된다. 그의 구원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

메시아를 모신 자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골짜기 같은 음흉하고 거짓된 마음이 사라지고 산과 언덕같이 교만한 마음이 낮춰진다. 정치권의 여야가 당리당락에 치우쳐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기쁨이 심한 감정도 정리되고 모든 험한 곳 같은 강퍽한 심성도 편진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모신 자에게 참 위로와 평안히 임한다.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 육체의 소욕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연구하지 못하다. 그러나 메시아를 모시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최악은 사함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풀과 꽃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유대인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다. 우리 백성을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6·25의 폐허에서 일으킨 하나님을 보자.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매우 큰 상급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는 보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하나님은 양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목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 인도, 인내, 은혜, 애착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지혜, 위대하심은 어느 우상이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그에게 맡기는 이에게 달음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 독수리처럼 비상 공공을 하며 승리와 희락을 맛보는 위로를 체험케 된다.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참 위로를 받게 하자.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름의 절정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폭염과 열대야로부터 평강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 시 발열 체크, 인사는 목례로, 철저한 마스크 착용, 8층 식당에서는 지정 좌석을 지킴으로 우리의 예배와 성김은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마음을 품은 청소년으로 자라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731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버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스또,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도,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힘들고 두려울 때 ”

■ 누가복음 12:1-12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영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요 1:11) 오히려 비방과 반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박해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왕의 세력과 로마총독의 세력이 충돌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서로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눅 23:12)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정적인 전망 대신 긍정과 희망의 전망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담합한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무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1. 주저하지 말라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지치고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지친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거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예수님께 대한 반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시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형식주의와 위선적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군중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 세력은 세상의 모든 힘을 상징합니다. 이 두 세력은 힘이 막강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군중에게 아부하거나 여론에 편승하지도 말고 위선적인 외식주의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세상 권력의 위험에 굴복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힘이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만큼 우리 사정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깊은 한숨과 신음도 기억하시고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일 4:18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로마의 관료들, 군중들이 두려운 존재이며 그들의 태도에 자기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세상 사람이 너희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머리털 하나까지 살피신다. 그러나 염려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3. 나를 시인하라

세상의 반대와 저항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력도, 여론도, 주변의 위협도 두려워 말고 주님만 따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신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사랑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노골적인 박해가 진행되던 때였고 스테반, 야고보 등 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시기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제자들의 안전과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안전을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는 대중 사랑하신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딱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아깝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버리시니까 사랑하신 내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증거하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김광태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김승록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6:47-4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8(시 1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03(40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눅 12:1-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힘들고 두려울 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25(35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21:1-2 인 도 자
 찬 송 20(41) 다 함 께
 기 도 오만옥 집사
 찬 송 43(57) 다 함 께
 성 경 약 1: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 설 교 자
 * 찬 송 337(36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기 도 ... I부: 최정숙 권사 II부: 권진순 권사
 성 경 창 11: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혼잡한 언어” 설 교 자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안용곤 목사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강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눅 12:8)	금주의 성구	
수요 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회소식

모임

1. 정기당회 / 8월 7일(주일) 오전 8시 402호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세번째 세례식인 8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8월 2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8월 7일(주일)
- 세례 교육 : 8월 14일(주일) 오후 1시 602호
- 세례 문답 : 8월 14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741명	390명	2,131명	948명	2,002명

2022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담당 교역자
중등부	7/29(금)-31(주일)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 (빌 2:5)	정기성 전도사
고등부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8/12(금)-13(토)	아가페타운	연약백성으로 살아가기 (출 19:5-6)	안용곤 목사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금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